

따 기독교의 여호와 하나님은
거룩하고 거룩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성경말씀: 사6:1-7

요즘 우리는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하기 위해 맥아더 목사님의 책을 중심으로 심도 있게 공부하고 있다. 왜? 1. 시29:2, 주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분께 드리며 거룩함의 아름다움으로 주께 경배할지이다.

2.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자신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요4:22-24).

하나님을 알면 바르게 예배하는 것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가장 중요하다.

지난 몇 시간,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1. 지정의를 갖춘 인격적인 존재, 우리 예배의 대상이 비인격체나 죽은 존재이면 예배 자체가 허무하다.

2.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분, 그것을 영이라고 말한다. 육체와 영이 대조돼서 나온다.

요4:24,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할지니라.

3. 여호와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시다. 다른 신들은 다 창조된 존재 혹은 사이비 신들

4. 성경의 한 하나님은 아버지, 아들, 성령님의 세 인격체로 존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이 외에도 예배 책에 보면 하나님의 많은 속성이 있다.

1. 변치 않는 분

2. 어디나 계시며 모든 것을 아시고 할 수 있는 분

3. 개인과 국가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

주일 오후나 금요일에 시간을 내서 몇 주 더 설명하려 한다.

오늘은 맥아더 책 8장 < >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해하지 못하면 바르게 예배할 수 없다.

자매님들의 목요 모임, 예배 공부, 끝나면 요약해 올려준다. 홈페이지의 기관 부서 자매 모임을 보기 바란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이 변치 않고, 전지전능하고, 편재하시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중요하다. 그런데 그런 속성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의 일부만 깨닫게 해줄 뿐이다.

가장 중요한 것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있다. 하나님의 모든 속성 중에 거룩하심은 그분을 가장 특별하게 묘사하는 말이다. 사실 이것은 그분의 모든 속성을 요약하는 말이기도 하다.

'거룩함'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독립성, 특별함, 그분이 다른 존재와 다르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또 하나님의 무한한 완벽함을 나타내기도 한다. 거룩함은 다른 모든 속성을 하나로 묶는 하나님의 속성이다. 제대로만 이해하면 그것은 우리 예배의 질을 획기적으로 바꿀 것이다.

계시록 4장 8절, 천상의 존재들이 하나님을 높일 때 "영원하다, 영원하다, 영원하다"라고 하지 않는다.

"신실하다. 신실하다, 신실하다" "지혜롭다. 지혜롭다. 지혜롭다" 또는 "강하다, 강하다, 강하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들은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전능자여"(계 4:8)라고 한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그분의 모든 속성 중 가장 중요한 것이다.

내가 25년 전쯤에 펜실콜라 대학에 석사 공부하러 갔을 때 가장 놀란 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설명 때문이었다. "거룩함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만드는 그분의 근본 속성이다."

이런 말은 어디서 들어 본 적이 없었다.

holiness, holy, beauty of holiness(대상16:29, 대하20:21, 시29:2), 96:9, 110:3)

거룩함의 아름다움이란 표현, KJV의 독특함, 아름다움이다.

출애굽기 15장 11절은 "오 주여, 신들 가운데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누가 주와 같이 거룩함 속에서 영화로우며 찬양 속에서 두렵고 이적들을 행하리이까?" 하고 묻는다.

사실 거룩함은 오로지 하나님만의 독특한 속성이므로 시편 111편 9절은 "그분의 이름은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라고 말한다. 그것은 단지 하나님의 이름이 성스럽고 신성하다는 뜻만이 아니다. 거룩함이 하나님 성품의 본질이라는 것이다.

holy and reverend, 목사에게 적용될 수 없는 말이다.

절대적인 거룩함의 기준

하나님은 거룩한 기준에 따르지 않으신다. 하나님 자신이 기준이기 때문이다. 그분은 결코 어떤 일을 잘못하거나, 실수하거나, 잘못 판단하거나, 옳지 않은 일이 일어나게 하시는 법이 없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는 정도가 없다. 그분은 흠이 없고, 오류가 없으며, 죄가 없으시다. 완전히 의로우며, 완전히, 절대적으로, 무한히 거룩하시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으려면 우리도 거룩해야 한다. 세상의 창조 전 마귀와 그의 천사들이 죄를 범했을 때 그 사실이 입증되었다. 하나님은 즉시 그들을 쫓아내고 그들을 위해 하나님의 임재와 분리된 장소를 마련하셨다. 죄를 범한 인간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할 때, 그들의 궁극적인 결말은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 예비된 장소로 보내진다. 그곳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 밖이다.

마25:41, 그때에 그가 왼쪽에 있는 자들에게도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 예비된 영존하는 불에 들어가라.

히브리서 12장 14절은,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을 뵈 수 없다고 분명히 말한다.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의 거룩함의 기준이 절대적인 완벽함이라는 것이다. 하나님 자신의 흠 없는 거룩함이 궁극적인 기준이며 그 기준에 따라 우리는 심판을 받는다. 베드로는 "기록된 바,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할지니라, 하였느니라."(벧전 1:16)라는 글에서 그 진리를 분명히 나타냈다.

이것은 타락한 인류에게는 넘을 수 없는 장벽처럼 보인다(넘사벽).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죄를 범하였기 때문이다. 우리에게는 이미 죄가 있고, 우리 자신의 죄성으로 인해 치명적인 흠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이룰 수 없다. 사실 우리의 본성은 죄 때문에 속속들이 오염되었다. 죄성은 우리의 지성과 마음과 의지의 모든 면을 부패시켰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그 모든 딜레마를 놀랍고 다면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준다. 하나님 자신의 완전한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죄인에게 전가되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그 값을 치러주셨기에, 우리는 그분의 의로 말미암아 인정과 상급을 받는다.

고후5:21,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해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따라서 진정한 믿음을 가지려면 우리 자신의 모든 의의 가면을 벗고 우리가 가망 없는 죄인임을 고백해야 한다. 사실 우리 자신의 가치를 올리려는 모든 노력도 하나님께는 아무 의미가 없다. 가장 선하고 자비로운 인간의 행위도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 모두 깊은 결함이 있다. 하나님의 거룩한 관점으로 볼 때 그것은 쓰레기 같은 것들이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죄를 미워하시는 모습에서 가장 잘 나타난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죄를 미워하시는 모습에서 가장 잘 나타난다. 하나님은 죄를 용인하실 수 없다. 하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다. 아모스 5장 21~23절에는 죄로 더럽혀진 상태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려 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

“내가 너희의 명절날들을 미워하고 멸시하며 너희의 엄숙한 집회들에서 냄새를 맡지 아니하리라. 비록 너희가 내게 번제 헌물과 너희의 음식 헌물을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들을 받지 아니하고 너희의 살진 짐승들로 드리는 화평 헌물도 중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너는 네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없애라. 내가 네 현악기의 곡조를 듣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희생 제물과 절기와 음악 자체를 싫어하신다는 뜻이 아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원하신다.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배의 도구들이 죄로 오염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것들을 싫어하신다.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충족시키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이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증거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죄에 대한 심판에서' 잘 나타난다.

요즘 아마존에서 내놓은 하우스 오브 데이비드라는 영화 연재물이 아주 인기가 높다고 한다.

장르: 성경 기반 역사 드라마

시놉시스: 목동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부음을 받고 왕으로 성장하기까지의 여정을 따라가며, 사울 왕의 몰락과 다윗의 골리앗 전투까지를 담고 있다.

방영 일정: 시즌 1은 2025년 2월 27일~4월 3일까지 8화에 걸쳐 매주 목요일 공개

출시 후 17일 만에 전 세계 시청자 2,200만 명 돌파, 시즌 2도 확정되어 그리스에서 촬영 중 시즌 1, 1회, 사울의 등장과 몰락, 몰락의 이유, 하나님의 아말렉 진멸 명령 불순종

무서운 장면: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아각의 몸을 여러 토막 내서 죽인다(삼상15:33).

영화를 본 많은 사람들이 기겁을 한다. “아니 이게 성경의 하나님이야?”

왜 사무엘은 그를 여러 조각으로 잘라서 죽였을까?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말하려는 핵심이다.

1. 레10의 나답과 아비후, 2. 옷사, 삼하6장, 3 아나니아와 삽비라, 행5장

왜 하나님은 이들을 즉사시켜야 했는가?

하나님께서 어떤 때 하나님의 공의 즉 거룩함을 회중들에게 보여 주려 하시면 이런 일을 하신다. 우리의 교훈을 위해 고전10:11-12

하나님은 거룩하심의 최대 증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한 사람에게 인간의 죄를 짊어지게 하셨고,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장 잘 보여주었다. 즉, 죄에 대한 하나님의 증오와 그것을 이기는 능력을 보여준 것이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버려야 할 정도로 거룩하신 분이다. 그분은 자신의 거룩함을 만족시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최고의 대가를 치르셨다. 그것은 바로 아들의 죽음이었다.

거룩함의 아름다움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라

예배하는 삶은 하나님의 완전한 거룩하심을 확실히 나타내야 한다. 사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인정하고 이해하는 것은 참된 예배의 필수요소다. 시편 96편은 예배 찬송 시이다. 9절을 보자.

“오 거룩함의 아름다움으로 주께 경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분 앞에서 두려워할지어다.”

여기서 "거룩한 옷"은 오역이다. 거룩함의 아름다움이 되어야 한다.

성경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예배자들의 명백한 두려움을 자주 연관 짓는다. 그런 영광스러운 거룩함 앞에서 스스로 무가치한 존재라는 느낌이 압도적으로 밀려오고, 거기서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다. 예를 들면, 욥은 자신의 순례를 마친 후에 이렇게 말했다. "내가 귀로 듣는 것을 통해 주에 대하여 들었사오나 이제는 내 눈으로 주를 뵈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나 자신을 혐오하며 티끌과 재 속에서 회개하나이다"(욥42:5~6).

이사야와 하나님의 만남

이사야 6장에는 이사야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하는 이야기거나 온다. 대하 26, 옷시야는 16세에 즉위하여 52년 동안 유다의 왕으로 지냈다. 그는 적들로부터 나라를 지켰고, 통치 기간 동안 평화와 번영을 유지했다는 점에서 유능한 왕이었다. 그는 매우 강한 군대를 조직했고, 유다의 방위를 강화했으며, 경제적인 성장을 이루었고, 외부 보안을 철저히 했다. 그러나 내적인 면을 보면 그 나라는 부패하고 오염되어 비참했다. 그들의 예배는 악명 높을 정도로 깊이가 없었다. 사1장을 보라.

사람들은 훌륭한 지도자가 있고 물질적으로 번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잘되고 있다고 착각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옷시야 왕의 교만 즉 스스로 제사장 노릇을 하려는 교만 때문에 그를 치시자 옷시야 왕은 나병으로 죽고 말았다.

왕이 죽자 그 즉시 나라가 흔들렸고, 이사야는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야 할 절실한 필요를 느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이사야는 주께서 높은 왕좌에 앉아 계신 것을 보았다고 말한다. 거기서 이사야는

스랍들이 서로 화답하며 외치는 소리를 들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군대들의 주여 그분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3절). 우리 눈에 안 보여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온 땅에 충만하다. 이사야가 예배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느꼈을 때 화답하는 천사들의 소리에,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찼다. 5절에서는 그때 이사야가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보여준다. “그때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화가 있도다! 내가 망하게 되었고. 이는 내가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며 또 내가 입술이 부정한 백성의 한가운데 거하면서 내 눈이 왕 곧 군대들의 주를 보았기 때문이라, 하매 스랍들 중 하나가 정결함의 상징으로 흰 옷을 가지고 날아와 이사야의 입에 댔다. 그로 인해 그가 정결케 되자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실 수 있었다(8절).

왜 하나님의 대언자인 이사야는 자신을 저주했을까?

그 답은 매우 명백하다. 군대들의 주, 거룩하신 하나님을 직접 보았기 때문이”(5절).

이사야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았고 그분 앞에서 자신의 죄성을 느껴 뼈 속까지 큰 충격을 받았다.

그의 마음은 정결함을 갈망하고 있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은 어디로 갔는가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뵈 때 즉각적인 반응은 오직 거룩하지 못한 우리 자신을 보는 것이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지 않으면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없다. 진정한 예배는 경박하지 않다. 준비되지 않고 하나님의 위엄에 대해 무감각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무작정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얕고, 피상적이고, 경솔하지 않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철저히 깨닫고 그 결과 자신의 불경함을 처절히 느낌으로써, 한없이 의롭고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예배이다.

오늘날 현대 교회 예배의 가장 큰 문제점

하나님의 거룩함이 없다는 것이다.

죄에 대한 우리의 감각과 두려움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정도에 비례한다. 상한 마음과 깊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한 적이 없다면,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린 것이 아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갔을 때는 반드시 그런 반응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내가 진심으로 걱정하는 것은, 오늘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관련하여 피상적인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너무 가벼워졌다. 현대인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은 상냥하고 평범한 인간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를 조금도 이해하지 못한다. 만일 우리가 회개와 고백,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해지는 과정 없이 갑자기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간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를 받게 될 것이다.

오늘날 예배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많은 일들이 사실은 하나님을 거룩한 분으로 여기지 않는 것들이다.

그래서 참된 예배에 훨씬 못 미치고 있다. 기억하기 쉬운 노래를 부르고, 괴로운 감정을 느끼고, 마음에 드는 생각을 하고, 즐거운 기분을 자아내고 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그저 예배를 가장한 이기적인 활동일 경우가 많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진심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예배는 성경에 나오는 예배와 무관하다. 신학적이기보다 심리적일 수 있고, 영적이기보다는 육적일 수 있다. 참 하나님을 아는 참된 예배자의 반응은 이사야의 바반응과 비슷해야 한다. 우리 자신의 죄성에 압도되어 거룩한 두려움에 사로잡혀야 한다.

경건함과 두려움

참된 예배자는 건강하지만 영혼을 뒤흔드는 두려움을 느끼며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간다. 결국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들 안에서도 죄를 벌하시는 분이다. 히브리서 12장의 징계를 보라.

히브리서 12장 28-29

결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아는가? 그분의 두려움과 공포에 대해 아는가?

예배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께 최대한의 존경, 공경, 찬양을 드리는 것이다.

삼상2:30,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들을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들을 경홀히 여기리라 공예배와 삶의 예배에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한다.